

# 대학생의 COVID - 19로 인한 온라인 학업 경험

김영희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 Virtual 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Young-Hee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ju Touris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학업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Colaizzi의 분석 방법에 따라 15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눈높이 학습 욕구와 불만족스러운 학업 요인들에의 짜증, 학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에의 고마움,, 온라인 강의에서의 요인들과 외로운 싸움, 건강관리를 통한 조화 도모 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눈높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달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통을 향한 교수의 노력 및 성실성과 열정은 수업에서 학생들을 감동시킨다. 넷째,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원격 교육의 원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수되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college students' virtual academic experience due to COVID-19. Based on Colaizzi's analysis method, data from advanced interviews with 15 stu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showed a desire for eye-level learning, frustration on unsatisfactory academic factors, gratefulness for the factors that enhance academic satisfaction, lonely fight with the shortcomings of online lectures, and the factors predicted by COVID-19, and aim to seek balance through health car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ents should be prepared to learn at an appropriate academic level. Second, the change should be sought to increase delivery and concentration in class. Third, students are motivated by the professor's efforts to communicate in class and their sincerity and passion. Fourth, cooperation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 is needed to develop a sympathetic and supportive classroom atmosphere. Fifth, until the cessation of COVID-19, the principle of virtual education should persist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se results, which suggested specific ways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virtual learning lecture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virtual teaching directions.

**Keywords** : Virtual, Academic, Experience, College Students, COVID-19

---

\*Corresponding Author : Young-hee Kim(Tourism Univ.)

email: maria6302@hanmail.net

Received October 21,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December 1,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SARS CoV-2로 공식 정의되고 있는 COVID-19(이하 코로나 19라 칭함)는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함으로써 그 심각성과 유행성을 경고했다. 이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아직 완전성을 확신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고 보존적 치료가 주로 활용되는 상태이다. 2020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3천 446만 4,142명, 누적 사망자는 102만 7,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2월 말일에 중국 후베이성 후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도 감염자 수는 여전히 증폭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일 것이다[1].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 마이클 라이언은 내년 초에나 코로나 19 백신 첫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2]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인데 2022년에야 코로나 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3].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보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 놓았다. 모든 면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는 국내의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정부는 연초부터 국내의 급속한 감염 확산세를 중시하였다. 이에 확진자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권고하였고, 교육 기관의 개학을 연기했다. 그에 따라 거의 모든 대학이 3월 2일의 개강을 2주간 연기했다. 그러나 3월 중순에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원격 온라인 수업인 비대면 수업을 전격 진행했다. 1학기와는 달리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나 1단계 상황에서 여러 대학이 대면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강행하다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교의 사례가 있어 많은 대학이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 병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온라인 수업방식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대학 전체가 수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의 빠른 확산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기류를 탄 온라인 수업은 교육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수업방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원격 수업 교과목의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20%를 폐지한 후 개설 학점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긴 사실[5]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요구받게 되었다. 지난 1학기의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등록금 반환 논란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가시화된 2학기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장기적인 생존전략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중점연구소가 '일반대학 1학기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만 8418명 중 39.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교수와 다른 수강생들과의 소통 부족(59.2%), 집중 저하(54.3%), 접속 불안정(49.7%), 과제수행(44.8%) 등으로 나타났다[6].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은 5개의 과학 특성화대학(KAIST · UNIST · POSTECH · GIST · DG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만족도를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두 번 설문 조사하였다. 그 분석 결과 7점 만점에 학기 초 5.2점, 학기 말 4.6점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8.8%의 학생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실험 수업에서는 43.4%의 학생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으며, 친구의 부재(56.2%),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넷 환경에 대한 불만(49.5%), 서버의 불안정성(43.5%) 등을 온라인 수업의 장애 요소로 꼽았다[7].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게 비대면 산업을 교육에서 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8]과는 어긋나 보이며, 비대면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업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혁명적인 방식이든 진화적인 방식으로든 온라인 교육이 발전되어야 한다면 디지털 기술들에 의한 학업경험이 학습자를 성장시켜야 하는 교육적 욕구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행해진 설문 조사에 의한 연구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학업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학업의 사전적 의미는 '공부하여 배움을 닦는 일'인데 주로 학교에서 일반 지식 및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공부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업경험이란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배움을 담는 일 중에 겪게 되는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경험에 관한 탐색은 대학생들이 뜻하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에 임하면서 겪게 되는 학업에서의 적응적인 요소와 부적응적인 요소를 탐색하는 것과 연관될 것이다. 학업 적응은 동기화(motivation)와 적용(application), 수행(performance), 학업 환경(academic environment)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동기화는 학업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의식과 이에 대한 가치 판단 및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둘째, 적용은 학업목적의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의 몰입도와 성취도 등에 관한 하위목적이다. 셋째, 수행이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공을 향해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여 가는가와 관련되며 넷째, 학업환경이란 주어진 학업 환경에의 만족감에 관한 것으로 수강과목과 교수, 학업상황 등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9]. 따라서 학업경험 탐색은 이러한 구성 요소 측면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을 포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들의 실질적인 경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고, 더욱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비대면 학습경험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참여자 선정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120명의 예비연구 참여자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15명을 선정하였다. 이는 현상을 경험한 개인 5~25명을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10]를 따른 것이다. 예비연구 자료를 통해 눈높이 표집을 하였는데, 각 지역 대학의 재학생을 학년별로 고루 참여시키면서 학업에 충실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4학년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4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생들만을 참여시켰다. 2020년 7월 중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의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grade	participants (gender)	major field	school area	number of interviews
1	A(M)	Literature	Gang-won	2
	B(M)	Science & Engineering	Gyeong-gi	2
	C(F)	Literature	Seoul	2
	D(F)	Literature	Jeju	3
2	E(F)	Literature	Daegu	2
	F(M)	Science & Engineering	Gwang-ju	2
	G(M)	Literature	Gyeong-gi	2
3	H(F)	Science & Engineering	Busan	3
	I(M)	Science & Engineering	Pohang	2
	J(F)	Literature	Daegu	2
	K(F)	Science & Engineering	Mokpo	3
4	L(M)	Literature	Seoul	2
	M(F)	Literature	Jeonju	2
	N(F)	Science & Engineering	Gwang-ju	3
	O(M)	Science & Engineering	Busan	2

### 2.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자 15명과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평균 65분씩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동안의 비대면 수업경험은 어떠셨는지요? 둘째,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생활 및 학업의 장점과 단점은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셋째, 비대면 수업들 중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업 요인과 불만족스러운 수업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넷째, 온라인 수업형태가 지속된다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섯째, 코로나 19는 자신의 학업태도나 인간관계 등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나요? 여섯째, 2학기에 경험한 온라인 수업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필사되었다. 5 명의 참여자는 자신의 녹취 내용을 직접 필사하였는데 그들의 필사 결과조차도 자신이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되었는지 본 연구자가 꼼꼼히 확인하였다. 분석을 진행

하던 중 2학기의 비대면 학업경험에서의 추가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만 남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심층 면담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상담 실이나 조용한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경청과 지지를 통하여 여과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위급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학업경험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참여자들의 비대면 학업 경험에 대한 본질을 조망하기 위하여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11]을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업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나 문장 또는 진술을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들을 범주화한 것이다.

분석과정에서의 주관적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스티디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최종 기술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독립된 주제로 범주화했던 '과제스트레스'가 '눈높이 학습 욕구'의 주제에 포함되었다. 과중한 과제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더 잘 담을 수 있다는 의견에 합의한 결과였다. 둘째, 범주 '불만족스러운 학업 요인들'을 '불만족스러운 학업 요인들에의 짜증'으로 개칭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이니셜 표기가 부담스럽다는 참여자 3명의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알파벳 순서로 표기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스티디 그룹 논의 전과 후의 내용을 따로 안 내받은 참여자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 강의에 임하고 있는 본 연구자의 경험적인 의미들을 괄호치기하면서 학생들의 주관적인 온라인 학업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장치였다.

### 3. 연구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업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description)한 내용을 담은 15개의 축어를 귀납적,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72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명확히 드러난 의미 20개와 5개의 주제

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와 명확히 드러난 의미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henomenological subject and clearly revealed meaning

subject	clearly revealed meaning
Learning desire at an appropriate level	Stress from assignment, Inappropriateness of required academic level, Learning desi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Frustration of unsatisfactory academic factors	Frustration of unsatisfactory academic factors Professor's structureless operation of class, Inadequate virtual environment, A lack of mutual consideration and respect, Insufficient criteria of assessment, Unreasonable tuition
Appreciation for factors that enhance academic satisfaction	Efforts toward communication, Professor's sincerity and passion
Lonely Fight	Poor concentration, Indolent academic attitude, Highlighting advantages based on the type of lecture, understanding a range of test, Anxiety about school life, Anxiety about future career
Harmony through health care	Balancing relationship, Promoting harmony in the workplace, Managing health concerns and stress, Changing family interactions

#### 3.1 눈높이 학습 욕구

'한 학기 동안의 비대면 수업 경험들이 어땠냐?'는 질문에 모든 참여자는 학습자의 역량을 벗어난 과제의 양과 난이도 등으로 인한 <과제 스트레스>와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거나 낮게 <요구되는 학습 수준의 부당성>, <교과목 특성에 따른 학습 욕구>를 이야기했다. 2학기에 들어 교정되거나 완화된 부분이 있는 <과제 스트레스>는 과제 제출로 출석을 대신하는 1학기의 구조적인 문제였음을 참여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과제하기에 급급했던지라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한 학기였다(B, F)." 라는 대표적인 말로 과제 스트레스 경험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과목마다 매주 쏟아지는 과제들 중 과도한 학습량이나 시간을 요구하는 과제(모든 참여자)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이도(F, B, K, M), 목적이 불분명해서 무엇을 묻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C, G, L) 등으로 고통 받았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숙제 같은 느낌이 아닌 유익

한 과제를 경험한 참여자(D)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L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교수님들의 기준 없는 과제의 양과 난이도로 개강 첫 주부터 지쳤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몇 과목의 과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목적이 불분명한 과제이거나 수업자료나 설명에 포함되지도 않은 답을 요구하는 과제 같은 경우엔 노력에 비해 만족도는 떨어져서 짜증이 쌓여가요. 말도 안 되게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다른 학생의 답을 참고하려 해도 시스템 상 볼 수가 없고 자괴감은 쌓여가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초딩처럼 따라 쓰기 숙제를 하는 소모전을 펼치기도 했어요.”

또한 참여자 C, D, H, K, G, H, J, M, N 등은 <요구되는 학습 수준의 부당성>을 이야기 했다. 이는 일방향적 전달식 수업이 되기 쉬운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놓치기 쉬운 교수자와 학생 간의 난이도와 진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자료 등에 대한 조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설명이나 낮은 수준의 설명, 따라잡기 힘든 진도 빠기나 지나친 요약,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 자료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A와 G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수님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점은 인정되었고 학생들도 인정하는 바이나 1학년 수준에 맞는 걸음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고, 진도를 나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이 계시죠(A).”, “오프라인 수업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와 소통방식을 취하는 교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집중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비대면 수업의 와중에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춰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끝내는 어이상실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G).”

눈높이 학습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참여자는 <교과목 특성에 따른 학습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참여자들은 실시간 수업 형태와 비실시간 수업 형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비실시간 수업 형태로는 대체적으로 녹화본 제공, 강의 교안과 녹음본 제공, PPT 자료나 동영상 자료만 제공받는 등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첫째, 토론이나 토의 위주의 교과목은 어렵더라도 실시간으로 진

행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실습과목은 소수의 대면 수업을 통해서라도 실습의 목적에 맞게끔 재편성되어야 하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하고 셋째, 실습과목의 형태는 온라인일지라도 일반과목의 형태와는 달라야 하며, 넷째, 팀 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하는 수업의 경우 팀원 간 교류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융통성 있게 개인 과제로 대체한 교수님께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B, M, F).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실험과목은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을 진행했는데 타 지역에 사는 저는 참여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 장면 녹화본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답답하기만 했어요(H).”, “실습을 하는 전공이 여러 개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얻게 되는 것이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인원을 나눠서라도 실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I).”,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사전에 학교에서 배달하거나 준비하게 해서 화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직접 따라하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J).”, “남 앞에 나서기 힘들어하는 저로서는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할 때 비대면 실시간이라는 점 때문에 될 부담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M).”

### 3.2 불만족스러운 학업 요인들에의 짜증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면서 갑작스럽게 행해진 경우가 때문에 모두가 미숙하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수업에서의 전달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나 변화를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개강 이후 달라지지 않는 <교수들의 개념 없는 수업 운영>과 <미흡한 온라인 환경>,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의 부족>, <분별력 없는 평가> 등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부당한 등록금>에 대해서도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수들의 개념 없는 수업 운영>에 분노를 나타냈다. 그 모습은 다양했는데 수업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행태를 공통적으로 꼬집고 있었다. 개념 없는 수업 운영의 양태에는 핵심과 맥락 없는 수업 진행(C, G, N), 아무런 설명 없이 교재나 교수 자료만 읽어 내려가는 교수(B, E, G, H, I, K, M), 답과 정답을 구분 못 하는 교수(J, M), 인터넷상에서 구한 자료나 PPT만 올리고 강의하는 것 없이 과제만 요구하는 교수(A, D, F, L), 과제로만 강의를 대신하는 교수(C, H, O), MOOC에서 가져온 영상을 띄우고 그 내용에 대

한 질문만 처리하는 수업을 진행하신다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교수(F, J), 실습과목이라는 핑계인지 진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수(D),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질문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교수(A, D, J) 등이 있었다. 한편, 모든 참여자는 수업 시수에 훨씬 못 미치는 단축 수업이 진행된 것을 경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꼬집는 I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비록 동영상 강의여서 실제로 듣는 것 보다는 약간의 질은 떨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저희를 이해해주려 그나마 동영상이라도 찍어줬으니 말이죠.”

둘째, 수업의 질이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참여자들은 <미흡한 온라인 환경>을 거론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의 책임을 크게 물으면서도 학습자들의 측면도 거론하였다.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화질과 음질, 접속의 어려움이나 끊김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의하였는데, 온라인 환경은 2학기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C와 G, J는 수업 참여자들의 시행착오와 수업 방식에 따른 환경 조성의 미흡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측에서 수업의 형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모든 교수-학습자들에게 사용법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M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기기로 인한 접속의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테블릿 PC 같은 일괄적인 수업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O는 듣기 힘든 오디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자막 기능이 필요함을 말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안정화된 서버를 구축하여 강의 제작에 따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수업에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셋째, 대면 수업에 비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학생들과 교수들, 학교가 서로의 입장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참여자들은 <상호 간의 배려와 존중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의 내용은 속속 문제나 이동 문제로 불안을 겪는 타지역 학생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학사 정보가

필요한데 늦장 대처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학교가 타지역 학생들에게는 참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A, D, C, F, G, M)과 과제 제출일은 일정한데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막바지 시간에야 수업자료를 올리거나 2, 3, 4주 수업자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기한 내에 과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교수들(B, G, J, K, N, O), 실습수업 방식에 대한 공지를 계속 바꾸어 혼란을 주는 학사처나 교수(C, H, I, J, N), 교수님의 수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화면을 끄는 행위 또는 교수님의 부름이나 질문에 일관된 무반응 등으로 수업을 지연시키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A, B, C, D, E, K, L, M), 실시간 수업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스나 미용실, 카페와 같이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거나 누군가와 말을 하거나 먹는 등의 행위로 오디오 기능을 마비시키는 학생들(O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 정확하고 신속한 시험정보 부재로 혼란을 초래하는 학교 당국(E, H, N을 제외한 참여자) 등이었다. 이에 대한 I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한 빠른 피드백과 서로 간의 건강을 중시하는 태도, 사이버 강의에서 요구되는 매너들을 성실히 지켜주는 교수와 학생들의 태도가 만족스러운 수업의 요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수업에서는 듣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었고, 교수님의 결정이나 피드백 또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업이 있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나 행동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넷째, <분별력 없는 평가>에 대한 불만은 기숙사 배정 가능성과 성적 장학금 혜택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다. 상대 평가에서 주로 우위를 점했던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한 반면 그 반대 위치의 학생들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주제였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는 온라인상의 시험이 진행된다면 더욱 다양한 부정행위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였다. 참여자 A, D, G, H는 출석점수 부여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임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임에도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출석점수를 부여한 경우와 실시간 수업 미참여 학생들이 그 녹화본을 다운받으면 똑같이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불만의 사유로 들었다. 절대평가의 오용 문제 또한 제기되었는데,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행태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C, D, J, M, O를 제외한 참여자). 모호한 평가 기준 제시와 비대면 시험에 부적절한 평가방식, 과제 제출 기한의 연장 등을 통하여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K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랑 그냥 대충 하는 애들이랑 차이점이 없는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절대평가라서 오픈북 시험도 많았고, 구지 대면 시험장을 열어 놓고 누구나 베껴 쓸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을 치르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결국 출석 다 인정하는 꼴이 되고 .....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과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최대한 컨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G와 O를 제외한 참여자들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한 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과 같은 형태의 수업을 하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등록금을 챙기는 대학들의 부당한 처사를 그 주요 이유로 들었고, 학교시설 미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각 수업에서의 장단점을 챙기면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일반 사이버 대학 등록금 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C, H, N)과 온라인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참여자(D)도 있었다.

### 3.3 학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에의 고마움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 상에서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성스럽게 수업에 임하는 <소통을 향한 노력>과 <교수자의 성실성과 열정>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두에게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만한 소통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는 교수의 태도를 원했고,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통을 향한 노력>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모두가 함께 겪어야 하는 수업의 형태들이니만큼 학생들이 주의하거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들의 질문이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을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활한 수업을 추구하려는 모습들을 높이 샀다. 이와 관련된 학년별 이야기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 켜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향하여 사전 통보도 전혀 없이 갑자기 불이익을 주시는 교수님은 원망스럽죠. 학생들이 안보여 외로우시거나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싶으실 수 있지만 원하시는 행동이나 자세를 사전에 알려주시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시는 교수님도 계셨으니까요.”(C), “매 강의마다 주어지는 출석 과제를 학생과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하셨던 교수님의 수업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한 교수님은 ‘오늘도 서로가 힘들지만 우리 파이팅합시다.’라는 멘트를 날리시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위로를 안기시면서 동기를 부여하셨던 같아요.”(G), “학생들끼리의 의견을 나눌 시간도 부여하시고, 수업이 끝날 때쯤 질문을 요청하시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수업 전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과 그에 맞춰 변화하는 수업을 확인할 수 있는 교수님은 그저 존경스러웠어요.”(I), “랜덤으로 질문하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은 집중할 수밖에 없죠. 강의의 특성에 맞는 수업 형태를 선택하시면서 빠른 답장과 출석과 시험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한 공지, 수강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과제 제출 형태를 바꾸어 주시면서 학생을 배려하시는 교수님에 비해 독학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수업자료만 달랑 올리고 아무런 반응도 않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O)

<교수의 성실성과 열정>은 <소통을 향한 노력>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수업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에 집중하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이었다. 수업을 빼먹지 않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E, F, J, L, M, N), 매번 수업자료를 미리 올려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B, C, E, G, I, N, O), 교수자료를 수업목표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고(A, C, K),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강의 영상을 또다시 올리며(B, E, K),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H, I, O), 학습 진행이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교정해 주는 모습(D, F, O) 등의 내용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교수자의 수업 준비도에 따른 만족도는 대면 강의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수업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만족해했다. 강의 자료를 촉박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린곤 하면서 대학원생이 수업을 대신하게 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함에도 달라지지 않는 교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나타내는 참여자도 있었다.

### 3.4 외로운 싸움

비대면 강의에 참여해야 하는 교수들의 노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에 <떨어지는 집중력>과 <나태해지는 학업 태도>를 보충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수업 형태에 따른 장점 살리기>를 시도하면서 학점을 챙기기 위하여 기말고사에 몰아 붙여진 <시험 범위 소화하기>에 분주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학교 방침이 자주 바뀌고 학사 일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고, 한편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일자리의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취업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표현은 달랐지만 모든 참여자는 비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주요한 이유로 <떨어지는 집중력>을 거론하였다. 대면 강의는 교수님의 비언어적 메시지와 수강자들의 수업에 임하는 모습들에 자극을 받고 동기화됨으로써 수업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대면 강의는 컴퓨터만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니 집중력과 몰입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질 낮은 온라인 환경과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짜증과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는 이점으로 판짚을 하게 되니 수업에 집중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음을 이야기했다. 모든 참여자를 대변할 수 있는 G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화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산만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옆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다 화면을 끄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으니 자꾸 딴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서면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주의 집중을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떨어지는 집중력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휴식공간과 학습공간이 공존하는 집에서 학업에 임하는 것과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의 결합으로 시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과 관련하여 <나태해지는 학업 태도>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야기했다(I와 O 제외). 이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엔 경쟁의식 때문에라도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습

관 때문에 적응이 힘들고 자꾸 늦게 되면서 하루 할당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과제 마감 시간까지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비 등교라는 이유로 학습태도나 몸가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니 더했던 것 같아요. 완강은 힘들고, 압박해지면 몰아듣느라 밤을 새우고,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무기력해지더라고요.”라는 J의 진술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인강의 특성상 밀릴 수밖에 없어서 틀어놓기만 했다는 친구들도 흔하다.”는 보고를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D는 ‘등교 시간까지 학습에 투자할 수 있고, 혼자라는 요인이 집중도를 높이고 자기주도 학습의 즐거움은 있지만 불규칙해진 생활 습관으로 나태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잉여 시간까지 더 많은 공부를 할 것 같은 경쟁의식 때문에 더 열심히 주체적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는 I와 O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자꾸만 하락하는 집중력과 나태해지는 학업태도에 저항하기 위해 <수업 형태에 따른 장점 살리기>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A, B, E, G, K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소음이나 끊임만 빼면 마이크나 채팅을 통해 토론이나 질의응답에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M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것과는 달리 비대면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와 N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녹화나 녹음 강의안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이해가 어렵거나 필요한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었고, 필기를 위하여 멈추기를 하거나 교수님의 말이 빠른 경우 천천히 들으면서 반복 학습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D는 시험 공부하는 데는 녹화본이 최고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C와 K에게는 PPT 자료만 올라오는 경우 아무런 방해도 안 받고 자신이 더 알고 싶은 것은 검색해가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었다. I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어플들을 강의나 과제 수행을 통해 유용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좋았다. O에게 온라인 강의는 의자나 침대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주체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좋았던 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형태와 상관없이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는 교수들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치성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또한 처음 공지된 시험 일정이나 방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학점을 관리하기 위한 실험불안을 경험하였는데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되고 한 학기 동안 수업한 전체 범위가 기말고사로 몰아 붙여졌지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시험 범위 소화하기>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B의 진술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범위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전체 범위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에 놀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두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비대면 시험이다 보니 접속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빨리 쓰고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놔야 할 거라는 생각으로 대면 시험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교재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학사 운영 일정이나 방법 때문에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을 나타냈다. 먼저, 주거지가 학교와 다른 지역인 참여자들(H와 O 제외)은 학업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으로 대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예약했던 교통편을 해지했다 예약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고, 숙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와 짐을 언제쯤 택배로 부쳐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늘 고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습과 관련한 불안을 나타냈다. 미뤄지기만 하는 실습으로 인해 실습 시기와 실습 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불투명해지는 학사일정을 염려해야 했다(E, F, G, J, M, N, O). 대표적으로 I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짐을 싸서 보내야 하고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나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늦어지는 공지 때문에 교통편을 예약했다 해지했다를 반복하고, 몇 박스나 되는 짐을 택배로 언제 부쳐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매번 미뤄지는 실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다가 중요한 현장 실습인데 할 수나 있게 될 것인지로 고민했는데 단축하여 실시되더군요. 앞으로도 2개의 실습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인 게 안타깝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취업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C와 D, F는 스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대외 활동이나 집단 활동에의 참여 제약을 아쉬워하면서, 자신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염려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격시험이나 인증 시험 또는 공채 시기나 취업을 위한 시험들이 잠정 연기되면서 끝없이 마라톤을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힘들어하였고, 코로나 여파로 채용인원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으로 불안해했다. 그러는 한편 이들(F, G, L, M, N, O)은 학과 외의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더 확보되는 비대면 수업을 환영하였다. 이에 대한 O의 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했던 시험 일정이 연기되어 공부 기간이 늘어나 늘에 빠진 느낌이에요.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들이 재정비되어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건 확실해 보여요. 노력이 배신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 생긴 시간적 여유가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이점은 좋지만 그거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일거고요.”

### 3.5 건강관리를 통한 조화 도모

비교적 취약한 연령층이 아님에도 비대면 학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까닭으로 모든 참여자는 코로나 19 증식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었다. 이에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려고 애썼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보균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대면적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인간관계 조절>에 힘썼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학 새내기들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불안감과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면 수업을 바라지 않았고, 대면 수업 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교수와 오픈북을 하면서 대면 시험을 고집하는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C, F, G, H, I).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SNS를 통한 대인관계를 도모하였다.

둘째, 학업을 지원하거나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들(A, D, E, H, I, J, K, M)은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일터에서의 조화 도모>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마스크 끼고 손소독도 틈틈이 하지만 가까이 마주하며 있어서 찝찝해요. 앞에서 손 소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불쾌해할까 봐 줄서 있는 손님까지 전부 다 가고 나면 바로 소독하고, 그냥 마스크 안 낀 사람은 괜히 좀 뭔가 멀리해야 될 것만 같고, 어딜 가면 방역이 잘 되어있을지 불안하고. 괜히 머리가 아프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걸렸나?’ 하는 불안함과

의심을 갖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면 재채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요.”라고 진술한 J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다.

셋째, “확진자 동선 정보를 매일 확인하면서 그 동선 주변에는 최소한 2주 동안은 안 가려고 노력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가는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되요.” 라는 E의 말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참여자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스트레스 관리> 경험을 하고 있었다. 건강 염려는 자신과 가족원의 감염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기에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원인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날이 더워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짐에도 심한 황사 때도 안 꺾던 마스크를 끼고(B, E, J, L), 한 학기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방학만 되면 멀리 떠났던 여행을 못 가고(C, E, H, I, J, L, M),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카페나 산책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 등으로 답답함을 느끼고(G와 O 제외), 실험이나 실습을 해야 하는 과목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상황이 납득 안되고(B, F, E, K, L), 헬스나 야외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고(C, E, G, J, N),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의도치 않게 철창 아닌 철창 속에 갇혀 살게 되고(E, J, L, M)’ 등의 참여자들의 말 안에 건강염려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은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잠깐 H의 진술을 들어 보자.

“황금 같은 20대의 1년을 집에만 틀어박혀 SNS로만 세상과 만나는 것이 많이 우울했어요.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니 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로 인해 가족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될까 봐 걱정되고,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강의가 비대면과 대면이 섞여 있어 납득하기 힘들습니다. 방문일지 작성과 거리 두기 수칙,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하고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감염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이상 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면 비대면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염려는 다양한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낳고 있었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었다. 주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가기(B, O 제외), 아주 가까운 친구를 가끔씩 만나거나 비대면 접촉을 통해 소통하기(A,

B, D, F, G, J, L, N), 자격증 시험 준비에의 몰입으로 성취감과 새로움을 추구하기(B, C, H, I, K, L, M, O), 사람이 없는 야간에 산책하기(C, G, J, N), 과거의 여행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기(C, H, I, L, M), 자기관리에 집중하기(B, E, F, H, N, O),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몰두하기(D, G, I, L) 등을 통해 <건강염려와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코로나 19의 증식이 되풀이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내용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실천하였다. 서로 손 씻기를 독려하고, 출근하시는 부모님의 마스크를 챙기고, 동생의 학습을 돌보거나 온라인 강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건강을 향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실습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통화가 잦아지면서 가족 간에 더 끈끈해졌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 3 수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과 소원해지고 집안에선 말수가 적어졌음을 보고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 4. 결론 및 논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외부적인 요소들을 경험하면서 보다 나은 학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찰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요청과 고마움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거한 참여자들의 학업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자들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눈높이 학습의 욕구를 나타냈다. 첫째, 과제의 양이나 난이도가 조정됨으로써 <과제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고, 특히 목적이 분명한 과제가 주어지기를 바랐다. 둘째,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학습수준을 요구해 주기를 바랐다. 셋째, 교과목의 특성이나 학습목표에 알맞은 수업이 진행되기를 원했다.

두 번째, 참여자들은 불만족스러운 학업 요인들에 짜증을 나타냈다. 교수들의 개념 없는 수업 운영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미흡한 온라인 환경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또한 학교 당국과 교수 및 학생들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 부족을 아쉬워하면서 차별력 없는 평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러한 불만족 요인들은 대학 등록금의 일부 반환에 대한 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참여자들은 교수들의 소통을 향한 노력과 수업에서의 성실성 및 열정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고마움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수들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주의하거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공지해 줄 것과 질문이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야 학습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활한 수업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에서의 단점과 코로나 19로 인해 예측되는 요인들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첫째, 떨어지는 집중력과 나타내지는 학업 태도를 보충하기 위해 수업 형태에 따른 장점 살리기를 실천하면서 광범위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소화하고 있었다. 둘째, 자주 바뀌는 학교 방침과 예측이 어려운 학사 일정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다. 불안의 해소책으로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신속 정확한 대처를 요구하였다. 셋째, 코로나 19 종식 이후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취업 불안을 경험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증식에 대한 불안을 향해 건강관리를 통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비교적 비취약한 연령층에 속하는 참여자들임에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노력은 첫째, 인간관계 조절에 힘쓰고, 자신의 일터에서 조화를 꾀하며, 건강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실천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코로나 19 환자의 증감이 되풀이됨에 따라 가족 간의 상호작용 내용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비대면 강의의 낮은 만족도([6], [7])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높이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역량을 고려한 난이도와 양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교과목들에서도 과제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과제 완성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연구 참여자의 말대로 학생들의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충분히 처리하고, 경우에 따른 피드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전달식 수업이 되기 쉬운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자료를 조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난이도와 진도를 조율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배려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때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자의 편의에 따른 수업 형태보다는 교과목의 특성이나 학습목표에 따른 수업 형태를 취해야 한다. 토론이나 토의 위주의 교과목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실습의 목적에 맞는 수업 형태를 편성하되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팀원 간의 가능한 교류 수준에 맞춘 팀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실험과목에 참여가 면제되었지만 실험 장면 녹화본이라도 보고 싶었다는 참여자의 아쉬움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의 실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실습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학교에서 배달하거나 준비하게 해서 화상으로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이 직접 따라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참여자의 말은 온라인 실습수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수업에서의 전달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행해진 온라인 수업에서의 미숙함이나 불편한 상황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수는 철저한 수업 준비를 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올려놓은 학습 자료와 일치하는 구색을 갖추고 정해진 시수에 맞춘 수업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분노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 당국은 IT 기술에 의존성이 크다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12]을 수용하여 인터넷의 속도와 접속의 문제를 예방하고 화질이나 오디오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불만족 요인으로 인터넷 환경 및 네트워크의 연결 문제와 서버의 불안정성 등이 거론되었듯이([6], [7]) 본 연구 참여자들도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화질과 음질, 접속의 끊김이나 어려움 등은 2학기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의 형태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과 장비를 학교 측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모든 교수-학습자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온라인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진보되어 가는 기술을 도입하여 탄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다양한 수업

형태를 지원하려는 학교의 노력은 온라인 교육에서의 만족지수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와 교수, 학생들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교수는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수업자료를 올리고, 제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과제를 요구했을 때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 또한 교수의 수업 지침을 따르고, 소음 발생 요인을 최대한 자제하며 수업에 참석함으로써 수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변화된 시험이나 수업방식 또는 학사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줄임과 동시에 이동 문제나 속속 문제로 불안을 겪고 있는 타지역 학생들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공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는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설명과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이버 대학과 같은 형태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등록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이해되기도 한다. 학습자들의 다양한 기기 사용이 접속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테블릿 PC 같은 일괄적인 수업 도구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한 참여자의 주장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수업 상에서의 소통을 향한 교수의 노력 및 수업 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수의 성실성과 열정은 필수적인 임무이면서도 학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온라인 수업에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소통부재였던 연구 결과([6], [7])와 관련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원만한 소통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애쓰는 교수들을 높이 샀다.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조건들이나 주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과제나 질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교수들을 향해 고마워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내용 이해를 돕는 것이 교수 본연의 임무임을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임에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교수의 노력은 대면 강의에도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수업자료를 미리 올려서 학생들이 예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목표에 맞는 형태로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학

생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려고 애쓰고, 학습 진행이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교정해 주는 모습 등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감동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수업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참여자들의 소감은 대학 강의에 임하는 교수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로 판단된다.

네 번째, 온라인 학습에서는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는 떨어지는 집중력과 나태해지기 쉬운 단점으로 완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온라인의 특성상 자기고립 학습을 감당해야 하는 수강생들에게는 습득율을 높이기 위한 참여의 문고리가 스스로의 책임감과 의지에 달려 있기[12]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 형태에 따른 장점을 살려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었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강점을 말하는 참여자들은 떨어지는 집중력과 나태해지는 학업태도 때문에 힘들어했다. 참여자들의 '우리 다 같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힘내봅시다.'라는 교수님의 한마디가 의외로 많은 위로가 되더라는 진술과 주의 집중을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떨어지는 집중력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다는 언급, 랜덤식 질문이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말은 온라인 강의자의 융통성과 그에 따른 학습자의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 번째,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의 원격 교육 원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수되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대면 수업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항변으로 갈음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보균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하는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을 원하지 않았다. 가족의 건강까지 염려하면서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에 감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면 수업을 향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학교 당국과 교수, 학생들이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 배려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타의적 온라인 학업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드러낸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S. H. Jeon, "[World Corona 19 Accidents] Cumulative Death 34.46 million, Death 1.02 Million 'Breaking'". Festival News. c2020 [cited 2020 October 2], Available From: <http://www.chooki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3357> (accessed Oct. 2. 2020)
- [2] LA Local/Society. "WHO Covid-19 Vaccines Will Not Be Available until Early Next Year". Korea Times. c2020 [cited 2020 July 20], Available From: <http://la.koreatimes.com/article/20200722/1320578> (accessed Aug. 11. 2020)
- [3] G. Y. Kim. "Bill Gates, The cessation of Covid-19 Will Be 2020... Covid-19's Cure Will Be in Supply Next". Korea Political Science News. c2020 [cited 2020 September 16], Available From: <http://kpenews.com/View.aspx?No=1237365> (accessed Sep. 17. 2020)
- [4] J. H. Kang. "How far should the college tuition be returned?... Students 'Repelled' , College 'Burdened' added to the second semester". Money Today. c2020 [cited 2020 September 23], Available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310395672729&outlink=1&ref=%3A%2F%2F> (accessed Sep. 24. 2020)
- [5] Eduin News.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s 'Official Instruction' to manage the quality of remote classes at university". Eduin News. c2020 [cited 2020 July 28], Available From: <https://quantum-jump.tistory.com/149> (accessed Aug. 31. 2020)
- [6] S. L. Kim. "Master's degree starts virtual learning new year... Disregard the upper limit of credits for the remote classes". Seoul News. c2020 [cited 2020 September 10], Available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0010006&wlog\\_tag3=daum](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0010006&wlog_tag3=daum) (accessed Sep. 10. 2020)
- [7] H. S. Park. "'Depression'... Virtual Learning, Have become less satisfying". Jungang News. c2020 [cited 2020 September 17],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555> (accessed Sep. 20. 2020)
- [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conomic Policy for the Second Half of 2020".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2020 [cited 2020 June 1], Available From: <https://bpmlgy.b-logy.com/152> (accessed Jun. 20. 2020)
- [9]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10] D. Polkinghorn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Valle &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PP.41-60, New York: Plenum Press, 1989.  
DOI: [http://dx.doi.org/10.1007/978-1-4615-6989-3\\_3](http://dx.doi.org/10.1007/978-1-4615-6989-3_3)
- [11]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lenu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71, 1978.
- [12] J. Y. Park, "A Study on the Online Education of the University Promoted by Corona 19" *The Journal of the KSME*, Vol. 60, No. 7. PP. 32-36, 2020.

김 영 희(Young-Hee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4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 부모교육